



위도 교육 소식

- ▶ 발행인 : 교장 장병수
- ▶ 주 관 : 교감 박병현
- ▶ 편집인 : 교사 김주환
- ▶ 펴낸곳 : 위도초등학교

56349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잔등로 113-3 교무실 063-583-3808 / 행정실 063-583-7062 / <http://wido.es.kr>
 2017년 제 5호 발행일 2017. 12. 29(금)

지난 11월 2일(목),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목공활동으로 사물함을 제작하였습니다. 사물함으로 쓰일 목재에 예쁘게 색도 칠하고, 그 부품들을 여러 가지 공구를 이용해 직접 연결하여 사물함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사물함은 우리 학생들 모두가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만의 사물함 만들기



신나는 위도 스포츠 데이



11월 8일(수), 1~3교시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스포츠 Day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였던 스피드스태킹과 피구,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발야구를 포함하여 3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스피드스태킹은 3-3-3, 3-6-3, 사이클을 팀원 모두의 기록을 재는 것으로 운영하였고, 그 외에 릴레이 게임도 운영하였습니다.

피구 경기는 5판 3선승제로 7분 경기시간 제한을 두고 운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운동장에서 발야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11월 7일(화), 3~4교시에는 동화동무 씨동무 어린이도서관 구회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어린이와 함께 즐거운 책읽기"라는 주제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림책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들으며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책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합동 소방 훈련

11월 13일(월), 오후 2시에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훈련을 알리는 방송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그 동안의 안전교육 때 배우고 익힌 내용을 떠올리며 신속한 대피훈련을 하였습니다. 대피훈련 후, 부안소방서 소방대원 선생님이 소화기 사용 요령 및 각종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리울 승마장 승마 체험

지난 11월 16일(목), 전교생은 부안에 있는 아리울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육하시는 선생님께서부터 말들의 습성, 승마 장비의 이름, 말을 이동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다들 떨렸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멋진 모습으로 말과 하나가 되어 달렸답니다.



이웃 나눔 성금 모으기

11월 27일(월), 포항 지진 피해민을 돕기 위한 이웃 나눔 성금모금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정성스레 쿠키와 빵을 만들고, 오후에는 3개 팀으로 장소를 나누어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차츰 자신감을 얻으며 계획한 모든 장소를 돌며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눈 위를 뽕~ 뽕~ 스키 체험

본교 전교생 15명은 지난 12. 4(월)~ 6(수)까지 2박 3일간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스키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첫 날에는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제자리 서기, 멈추기, 넘어지기 등 기본적인 자세 연습을 위주로 연습하였고, 둘째 날부터는 리프트를 타고 초급자 코스에 올라가 배운 자세와 방법을 기초로 스스로 내려오는 연습을 했습니다.



김장 담그기 체험

12. 13(수)~14(목), 위도초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장 담그기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3일에는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14일에는 선생님들이 오전에 양념에 들어갈 야채를 다듬고, 오후에는 전교생이 식생활관에 모여 김장 담그기를 하였습니다. 김장 담그기가 끝난 후에는 수육과 함께 맛있게 맛도 보고, 가족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반 포기씩 집에 싸가지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진로 및 직업 체험

12월 14일(목), 과거에 실제로 간호사, 경찰관이란 직업을 갖고 활동하셨던 강사 분들을 모시고 진로 및 직업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강사 분들로부터 의료인이 되는 과정과 경찰관이 되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이러한 직업을 가졌을 때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방학 기간 : 2017. 12. 30(토) ~ 2018. 1. 30(화) (32일간)

☺ 개학하는 날 : 2018. 1. 31(수) 08 : 50 (정상수업 및 급식 실시, 실내화 및 방학 과제물 지참)

☺ 방과후학교 : 2018. 1. 2(화) ~ 1. 12(금)

겨울방학 안전사고예방 수칙

유형	안전사고 예방 수칙
교통 안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며 차안에서 창밖으로 머리, 손등을 내밀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습니다. 2. 도로 횡단 시 반드시 신호등의 신호에 따르고 좌우를 먼저 살피어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3. 버스에서 내린 후 정차된 버스 앞뒤로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4.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을 탈 때에는 도로가 아닌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안전장구를 갖추고 타도록 합니다.
유괴 성폭력 안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에 혼자 있을 때에 누가 오면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2. 다른 집을 방문할 때 가급적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지 않습니다.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잡아 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4.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중 80% 아는 사람임) 5. 혼자서 뒷골목이나 어두운 거리를 다니지 않습니다. 6.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참가아동을 비롯한 방학 중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 하는 아동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꼭 참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생명 존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자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2. 가정에서 자녀들의 컴퓨터 활동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 행동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자살사이트 등의 유해한 매체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며,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4.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 깨닫고 심한 반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지의 여부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전화(1588-9191, www.lifeline.or.kr) - 사랑의 전화(1566-2525 : www.counsel24.com) <자살충동자 긴급 구조요청 전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388, 02-730-2000 : www.kyci.or.kr) <우울증 상담소>
빙상 · 화재 안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빙판길을 조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지 않습니다.(뼈의 골절상 및 타박상, 인대손상 예방) 2. 강이나 호수에서 얼음을 타고 놀지 않습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3. 눈길 위에서 스노보드나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4. 야외 활동 시에는 적당한 관절운동으로 움츠려진 몸을 유연하게 풀어준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5. 성냥, 라이터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지 않으며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안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에서 놀러가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습니다.(가는 곳을 미리 말하고 연락처를 적어두기) 2.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3. 용돈을 아껴 쓰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합니다.



투견 대회를 폐지해 주세요.

6-1 신민희

현재 투견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농장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또한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많은 투견들이 투견대회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본적은 없지만, 인터넷 및 TV를 통해 많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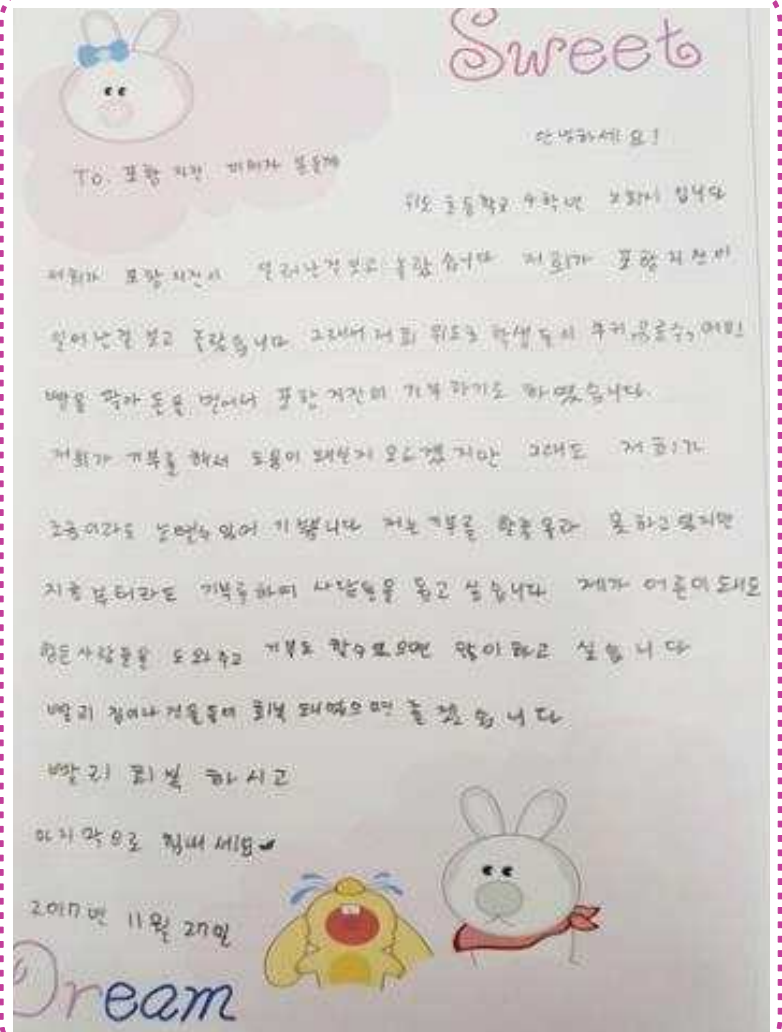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 및 이기적인 취미 때문에 죄 없는 개들이 죽는걸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투견들이 싸우다가 죽고, 빛도 못 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투견들은 대부분이 사냥개이거나 싸움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취급을 받아서 법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법에 위반이 되어도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견대회에서 승리한 개든 승리 못한 개든 살아있는 동안 생명체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개는 펄펄 끓는 솥에서 생을 마감 하고, 승리 한 개는 칭찬 한 마디도 없이 다시 감금되고, 다쳐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파서 죽거나 바로 다음 대회에서 다시 싸우다가 지면 죽는 게 대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투견 대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죄가 없는 투견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려견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위도초 이모저모

제6회 마실 동요제 참가

위도초등학교 3학년 김찬의, 장하음, 4학년 노희지, 맹민찬, 전환희 5명의 학생들이 지난 11월 2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회 마실 동요제에 참가했다. 3학년 학생들이 쓴 시를 가사로 만들었고, 평소 음악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든 노래를 예쁜 안무와 함께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1 · 2 월 행사 안내



Table with 4 columns: 월 / 일, 행사 내용, 월 / 일, 행사 내용. Rows include 1. 31(수) 개학 and 2. 9(금) 종업식 및 졸업식.